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150 CHAPTERS ON THE END TIME)

이 글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주요 주제인 150개의 장들에 대해 정리했다. 우리는 해당 장의 내용의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춘 장들만을 선정했다(장 전체의 내용 중 적어도 51% 이상이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춘 장들). 4복음서에서 약 89개의 장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해 초림하셨을 때의 그분의 마음과 능력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150개의 장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취하기 위해 오시는, 재림 때의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150개의 장들은 동일한 성경 안에 동일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 계시하고 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성경 장들의 숫자보다 재림에 대한 장들의 숫자는 거의 두 배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영화로운 150개의 장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께서 돌아오시는 세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세대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태어나신 세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다시 돌아오실 세대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 주께서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시간대에 그의 신부가 사랑 가운데 승리하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해 이 말씀들을 주셨다.

이 글은 각 150개의 장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 포함하고 있는 중요 부분들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은 150개의 장이 넘지만, 그 장들 중 어떤 것들은 주요 주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들도 있기에, 우리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그 숫자를 150개로 줄였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예언은 이중적인 성취(dual fulfillment)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중적 조명의 원칙(the law of double reference)이라고 불린다. 이는, 예언된 것의 부분적인 성취는 과거에 일어났지만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것이다.

부정적인 예언의 대부분은 대 환란의 때에 성취될 것이며, 긍정적인 예언의 대부분은 천년 왕국 때에 성취되어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18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초림에 대해서 이사야서 61:1-3절을 인용하신다. 그러나 이사야서 61장 내용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그 말씀들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때에 그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신 후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은 과거의 시간에 부분적인 성취의 내용이 있고, 주께서 돌아오시는 세대에 완전한 성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때때로 부분적인 성취의 모습은 시대의 마지막에 완전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성취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글에는 그 예언이 역사가운데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예언들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성취를 이룰 때까지 모든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 예수께서 처음에 이사야 6장의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하나님 나라(kingdom of heaven, 천국)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 몇 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다. 이 비유들에 깔려있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1장 : 이 네 개의 장들에 대해 예수께서 주로 강조하신 것은 주의 재림 이전에 있을 대 환란에 대한 것이다. 주께서는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다(마 24:2). 이 비극은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의 전조이기도 하다(골 3:2,12; 스펀 3:8; 스펀 12:2-3; 14:2; 계 16:14). 이 네 개의 장에 나타난 많은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AD 70년에 있었던 일들을 훨씬 능가하여,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는 대 환란의 때를 창세로부터 가장 심각한 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21).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대를 3년 반으로 줄이셔서 온 인류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마 24:22). 예수께서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덮과 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다(눅 21:35). 대 환란은 AD 70년에 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들이나, 5천만 명이 죽임을 당한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역사속의 모든 재앙을 능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AD 70년의 일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일들도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지는 않았었다. 예수께서는 이 환란의 때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경배 시스템과 짐승의 표(계 13:13-18)를 포함한 멸망의 가증한 것을 보기 전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15). 이 일 중 어떤 것도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하여 일어난 기간 동안에(AD 66-70) 성취된 것은 없다.

마태복음 25장 : 이 장은 마태복음 24장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 때를 어떻게 예비할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시대의 끝에 있을 일들이 언급된다(마 25:1-30).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 직후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마 25:31-46).

고린도전서 15장 : 이 장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24-28절에서, 바울은 천년 왕국에서의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설명한다. 35-49절에서, 바울은 부활한 육체의 영광에 대해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50-55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죽는 대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재림 때에 홀연히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언급한다.

고린도후서 5장 : 바울은 부활한 육체와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에 대해서 가르친다.

데살로니가전서 4-5장 : 바울은 재림 때에 있을 교회의 휴거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설명한다(살전 4:15-18). 그리고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격려한다(살전 5:1-10). 바울은 거룩하여 질 것과 예수께서 오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될 것에 대해 기도함으로 마친다(살전 5:23).

데살로니가후서 1장 :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며, 복음의 대적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사 66:15) 영광의 날에 대해 묘사되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그리스도인들의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이 있게 될 것이다. 다가올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주요한 표적이라고 말할 만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일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사회 가운데 죄와 미혹이 가득 차게 되면서 생기는 도덕적인 타락과 관련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이는 특별히 은혜에 대한 잘못된 교리에 연관된 것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진리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 짧은 장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바울에 의해 세 번이나 언급된다(1, 8, 18절).

베드로후서 3장 : 바울은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단계와 이 땅을 불로 깨끗케 하심에 대해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5장 :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온 땅의 왕으로서 높이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두루마리는 땅의 모든 행한 일들과 이를 정결케 하실 계획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6장 : 사단의 영역(어둠의 영역, kingdom of darkness)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 :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과 타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요한계시록 8-9장 :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나팔 심판이 풀어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10장 :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언적인 메시지를 풀어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요엘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역동적이고 예언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요한계시록 11장 : 두 증인은 전에 없던 권능을 가진 선지자들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 사도 요한은 환난 때에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다.

요한계시록 13장 :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활동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 하나님께서는 144,000명의 유대인 믿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계시록 14:6-13절에는 네 가지의 주요한 예언적인 선포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맹세하신다.

요한계시록 15-16장 : 일곱 진노의 대접이 부어진다. 진노의 대접들은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 바로에게 부어졌던 역병들을 떠올리게 한다(출 7-12장).

요한계시록 17-18장 :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악을 좇고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미혹한, 전 세계적인 악한 경제-종교 네트워크인 바벨론을 멸망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 예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기 위해, 전사 이자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여 들어가신다.

요한계시록 20장 : 사단은 무저갱에 던져져 갇히게 되며, 예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천년 왕국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21-22장 :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새 예루살렘이 묘사되고 있다.

[모세 오경]

창세기 : 창세기에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은 이 문서의 뒷부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부분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레위기 26장 : 이 장은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들에 대한 언약을 담고 있다. 이 장의 내용은 역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대부분은 바벨론 유수 때(BC 586)와 예루살렘 침공 때에(AD 70) 뚜렷하게 일어났다. 레위기 26:14-39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스라엘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기 위한”(19절) 일곱 가지 형벌을 담고 있다. 여기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대의 침략들과 공격들은 역사적인 어느 한 때를 통해 성취되지 않았다. 이 일은 마지막 때에 가장 최고조에 다다를 것이며,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레 26:40; 호 5:15).

민수기 23-24장 : 이 장들은 모압 왕 발락에 대한 발람의 네 가지 예언적 계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예언적 계시들의 어떤 부분들을 다윗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계시들은 천년 왕국 때에 몇 나라들의 최종적인 파멸로 인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적대적인 나라들을 부수어 버리시는,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한 별과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한 홀로써 표현되신다.

신명기 28-30장 :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들이 주어진다. 신명기 28:15-68절의 저주들 중 어떤 부분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한 바벨론의 침략(BC 586)과 로마의 침략(AD 70) 때에 나타났다. 이 저주들은 대환란의 때에 상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충만한 축복들은 천년 왕국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32장 :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3절의 유리 바다 가에서 불려진다. 이 노래는 성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주의 리더십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준한 민족인 이방인에 의해(21절) 이스라엘이 시기 나도록 하실 것이다(16-21절).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대적들로부터의 궁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시며 살리시며 낮게 하실 것이다(39-42절). 이 일을 통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이다(43절).

[시편]

시편 2편 : 다윗은 열왕들이 예수님에 대해 대적하여 일어날 것에 대해 예언했다. 이 일은 대환란 때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시편에서의 열왕들의 분노는 초기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 대한 핍박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행 4:28-31).

시편 14편 : 시편 기자는 가증한 죄악들에 자신들을 넘겨준 자들에 의해 죄악이 가득 채워질 것에 대해 예언한다. 이 일은 대 배교의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있는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시편 24편 :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에서 땅의 왕들을 물리치신 후,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을 하시며 거룩한 곳(성산)으로 올라가신다. 이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멸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올라감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시편 45편 : 이 사랑의 노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의 대적들을 향해 전쟁을 하시며, 천년왕국에서 온 땅에 진리와 겸손과 의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시편 46편 : 이 시편은 대 환란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안전함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의 끔찍한 시간들 안에서 잠잠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시편의 1차적인 적용은 적들에 대한 다윗왕의 승리에 대한 것이며, 그로 인한 이스라엘 땅에 임할 평화에 대한 것이다. 8-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종국적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천년왕국의 강은 이 시편 4절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 47편 : 3절은 천년왕국 때의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때를 지칭한다고 본다(삼하 6절).

시편 48편 : 천년왕국 때에, 땅의 왕들은 천년왕국 예루살렘 바깥에서 놀라움 가운데 모여 있게 될 것이다. 이 왕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의 떨리는 위엄으로 인해 공황상태에 있으며, 그들은 이로 인해 도망한다(48:5).

시편 50편 : 천년왕국 예루살렘이 빛나고 있음에 대해 묘사되고 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계시되고 있다.

시편 53편 : 다윗은 또 다시, 가증한 죄악들에 자신들을 넘겨준 자들에 의해 죄악이 가득 채워질 것에 대해 예언한다. 그는 대 배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있는 때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시편 58편 : 악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의인들에 대한 상급이 묘사되고 있다.

시편 67편 :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권능을 보이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며 가르치실 것이다.

시편 68편 : 다윗은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 행진 가운데, 광야 가운데 행진해나가시며 그의 대적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들을 흡수하며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다윗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대한 구원(24-35절)을 나타내기 위해 출애굽과 시내산에서의 모습(4, 11-19절)을 사용하고 있다.

시편 72편 : 이는 모든 이들을 풍족히 공급하시며, 열방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충만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기도이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말년의 실제적인 기도이기도 하다. 이 기도의 범위와 충만한 것은 더 위대한 다윗으로서의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75편 : 이 시편은 계시록 14장에 보이는 열방에 대한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해 선포하고 있다.

시편 79편 : 이 시편에서는 대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기도(계 11:1-2)가 나타나 있다. 이 일들은 BC 586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와 4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의 잔인한 행적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시편 80편 : 이 시편의 주제는 대 환란을 겪는 이스라엘의 환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중보이다. 학자들 간에는 부분적인 성취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일치 없다.

시편 83편 : 대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이 열 나라 연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 이 시편의 애곡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반유대주의와도 관계가 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앗수르 포로와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 등의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시편 85편 : 이 시편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이다. 이 때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분노를 모두 그치시는 때이다. 이 일은 앗수르의 침공과 바벨론 포로기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시편 87편 : 이 구절의 성취는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며 시온에 있게 될 유대인의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등록은 히브리서 12:23절에 묘사되어 있으며, 하늘의 예루살렘에 기록된 거듭난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다.

시편 93편 : 예수님께서서는 권위(권세)를 입으신 야훼로 나타나고 계시며, 승리의 전사이자 왕으로서 찬양받으시고 있다. 온 땅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승리가 여기에 그려지고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시편 96편 :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 땅이 예수님을 경외함 가운데 예배하게 될 것이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성경에 9번 언급되고 있다(시편 33편; 40편; 96편; 98편; 144편; 149편; 사 42장; 계 5장; 14장). 시편 40편을 제외한 대부분은 전 지구적 새 노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땅의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인성과 창조에 대한 것이다. 새 노래(사 42:10, 계 5:8-14)는 새로운 일(사 42:9)이 임하기 이전에 이에 대해 선포한다. 즉, 온 우주가 예수님을 여호와로서 알며, 성도가 그와 함께 땅에서 다스리게 되는 일을 말한다.

시편 99편 :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며, 모든 열방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시편 102편 : 이스라엘의 절망과, 천년왕국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시편 110편 : 이 시편 구절들의 온전한 의미는 천년왕국에서의 예수님의 통치와 그의 마지막 때의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일하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구절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6번이나 인용되었고(마 22:44; 막 12:36; 눅 20:42; 행 2:34; 히 1:13; 10:13), 25번이나 직간접적인 암시로 인용되었다. 시편 110편의 주요 주제는 예수님의 영원한, 왕적이며 제사장적인 사역이다. 시편 110편에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두 가지 명령을 주신다.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원히 그와 함께 앉을 것을 초청하시는 것이고(1절), 그 후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책임을 부여하신다(4절).

시편 118편 : 이 시편의 총만한 성취는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일어난다. 이 시편의 부분적인 성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루어졌다(22, 25-26절).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마태복음 23:39절에서 인용하시며,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까지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시 118:26, 마 23:39).

시편 147편 : 예수님께서 그의 재림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며 온 열방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시편 149편 : 예수님께서 땅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역하실 것이다.

[구약 대선지서]

이사야 2장 :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이사야 4장 : 천년왕국은 여호와와 함께(렘 23:5; 33:15; 속 3:8; 6:12)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사야 5장 :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일은 BC 721년에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훈계하실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사야 9장 :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시대에 앗수르의 산헤립에 의한 침공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예언된 상세한 부분들이 그 시기에 모두 성취되지는 않았다. 그 때는 살육당한 군대의 복장과 갑옷들이 “불에 섞같이 사라지는”,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 있는 “창성케 하심과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느” 때가 아니었다(9:3-4). 약속된 자손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거나, 의와 정의로 그 나라가 굳게 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9:7). 다윗의 위(보좌)는 땅에 대한 메시아의 통치를 말한다.

이사야 11장 :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이사야 12장 : 이 예언적인 노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의 억압 하에서 구원하시고, 이사야서 11장과 같이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이다. 11-12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회복하신 후,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으로부터 온 땅을 향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 13장 :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유다 왕국에 대한 바벨론인들의 핍박(BC 605-539)은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 망한 BC 539년에 멈춰졌다. 바벨론은 이라크(바그다드의 남쪽 50마일 지점)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다시 세워져서 적그리스도의 본부로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전 세계적이고 악마적이며,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사 13-14장; 렘 50-51장; 계 17-18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예레미야 50-51장에 예언되어 있으며, 바벨론에 임할 갑작스럽고 영원한 파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일은 아직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사야 14장 :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파멸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된다. 계시록 19:20절에 묘사된 적그리스도와 그의 죽음만이 18-20절의 무덤이 없는 바벨론 왕에 대한 설명과 일치한다. 적그리스도는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행해진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사야 18장 :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때 에디오피아를 위하여 일어나실 것을 약속하신다(사 18:4-6). 다니엘 11:42-43절에서 적그리스도는 에디오피아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피아와 애굽을 칠 것이라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애굽(사 19장)과 에디오피아(사 18장)를 구원하실 것이다. 7절의 “그 때에”는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 에디오피아와 앗수르는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19장 :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애굽에는 국가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다(19:18-22). 애굽과 앗수르가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과,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앗수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되며,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산업(기업)이 되는 일은 아직 역사 가운데 성취된 적이 없으며,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것이다.

이사야 21장 : 바벨론의 최종적인 패망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것이며, 이 예언이 충만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BC 529년에 바벨론의 패망 시기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대인 포로들이 풀려나게 되었으므로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 포로들은 집으로 돌아와도 되었으며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사야 24장 : 이 부분은 대 환란과 천년왕국 때의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다. 21절은 땅의 왕들을 심판하는 것에 말하고 있다.

이사야 25장 : 이사야는 천년왕국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벌이시는 큰 잔치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인해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 26-27장 : 유다의 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며,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26:19). 이사야 27:12절은 마지막 시대에 애굽과 앗수르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심을 말하고 있다.

이사야 28장 : 이 예언의 충만한 성취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죽음의 언약(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으로 동맹을 맺을 때가 될 것이다.

이사야 29장 :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14, 17-24절).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도록 하실 것이다(사 29:1-7; 율 3:2; 습 3:8; 속 12:2-3; 14:2). 이 말씀은 산헤립의 군대가 초자연적으로 패망한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사 37장).

이사야 30장 : 이스라엘의 반역이 가득 차오르며, 그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6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14-26절), 앗수르로 불리는 적그리스도를 심판(27-33절)하기 전인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이사야 31장 : 여기에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와 적그리스도로부터의 구원이 묘사되어 있다. 7절에 나타난 범국가적인 회개는 이사야의 때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는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일어났다.

이사야 32-33장 : 앓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으로서 예언적으로 예수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대 환란의 때를 묘사하고 있다. 많은 유대 성읍들이 BC 701년 전쟁에서 불태워졌다.

이사야 34장 :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에돔의 멸망에 대해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 35장 : 이사야는 천년왕국 때에 있을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치유를 기록하고 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올 때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0절에 그려진 영영한 희락을 띠게 됨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부분은 더 큰 성취를 가리키고 있다. 5-6절에 나타난 신체적인 회복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사역에서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생태학적인 회복(1,2,7절)과 구원(4절)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 모든 육체가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메신저들이 다가올 종말론적인 영광에 대해 열방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워질 것이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세례 요한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부분적인 성취였다는 사실은, 그의 사역 때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와 영광을 함께 보는 것(5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야 41장 :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에 대해 단언하시며, 이스라엘을 억누르는 나라들마다 패망하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으로써 높임을 받으시는 때이다.

이사야 42장 :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전 세계적인 예배 운동(10-12절)과 함께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마 12:18-20)

이사야 43장 :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다.

이사야 44장 :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신(성령)을 이스라엘에게 부으실 것이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회복되며 국가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세계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온 땅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47장 : 바벨론을 향한 이 예언은 BC 529년에 성취되었다(단 5장). 그러나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 이는 이사야 13장, 예레미야 50-51장, 요한계시록 17-18장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이사야 48장 : 대 환란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회개 하시는 과정이다(10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유업(그의 영광)을 마지막 시대에 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노를 거두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사야 49장 :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이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이실, 천년왕국에서의 예수님의 전 세계적인 리더십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처음으로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고후 6:2).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6절).

이사야 53장 :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국가적인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일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행 8:32-37)와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마 8:14-17) 성취되었다.

이사야 56장 :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기도의 집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에 보이는 사도들의 사역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이끌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사야 59장 : 이사야는 역사 가운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풀어지는(18절) 마지막 시대에도 있게 될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의에 대해(14-15절)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죄와 그 대적(적그리스도)으로부터 시온을 구원하시며(17-20절),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 싸우실 것이다. 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 공의를 세우실 위대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사야 60장 : 천년왕국에서, 많은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부를 가지고 오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위에 있게 될 것이다.

이사야 61장 : 예수님께서서는 천년왕국 때에 열방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사야 61:1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사야 62장 :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온 땅의 영적이며 정치적인 수도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의 충만함을 위해 부르짖을 중보자(파수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사야 63장 : 예수님께서서는 재림 때에 땅의 왕들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에돔(오늘날의 요르단)을 통과하며 행진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11-21절에서 땅의 왕들과의 전쟁을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함으로 이 구절을 인용한다.

이사야 64장 : 이는 이사야가 63장에서 예수님이 에돔으로부터 오시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하늘을 가르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에는 하늘의 영역이 가시적으로 열리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며,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는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이 강조되어 있다.

이사야 65-66장 :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 예레미야는 대 환란과 말일(the latter days, 24절)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3-8절), 이 장의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며, 포로로부터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 가운데 예배하는 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예언은 BC 53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세워졌을 때 또 다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여기에 기록된 언약들은 천년왕국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 여기에는 예레미야 30장에서 시작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대한 형벌과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계신다. 이는 예레미야 사역 이후 100년 동안이나 분리되며 잃어버렸던 북쪽의 10개 지파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흩어졌던 지파들에 대해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연합할 때 모든 이스라엘 위에 큰 축복과 번영을 가져오실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세워진 “새 언약”(31-34절)을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 하나님의 언약의 충만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든 족속들 앞에 칭송을 받는 천년왕국 때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50-51장 : 바벨론의 멸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궁극적인 성취를 맞이하게 될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다. BC 539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손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은 예레미야 50장의 부분적인 성취이다. 그러나, 이 예언의 특정한 많은 부분들은 이 시기에 성취되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예레미야 51장을 세 번이나 인용했다. 두 개의 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대적하시며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를 포함하고 있다.

예레미야 5장 : 여기서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근(겔 9장; 단 12:1; 마 24:21)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예언은 BC 586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기근에 관한 말씀들은 이 장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파멸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예레미야 11장 :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와 그 땅으로 모이게 되는 때이다(14-20절). 이 일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때와 1948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에스겔 20장 :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이산함(흩어버림)이 있음 후에 다시 모이게 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신 28-30장, 겔 20:33-4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을 깨끗케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회복하실 것이다.

에스겔 34장 :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며,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이며, 그들을 번영케 하실 것이다(신 30:1-10; 겔 34:11-31). 여기에 묘사된 축복들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한다(사 11:6-9).

에스겔 36장 : 이 예언의 충만한 성취는 천년왕국 때에 보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명이 갑작스럽게 불어넣어지게 되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표현되고 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회복되며 연합된 이스라엘 위에 부여될 것이다.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 38-39장 :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파멸이 기록되어 있다(계 19:17-21). 곡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이름이다. 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것이다.

에스겔 40-48장 : 천년왕국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제사와 희생 제물에 대해 설명한다. 어떤 이들은 이 희생 제사를 죄를 위한 희생 제사와 혼동하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더 이상 그러한 피 흘리는 제사는 필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요가 없다(히 8:5,13; 9:9,24; 10:1). 이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에 필요하던 것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십자가를 목상하듯이 희생 제사를 통해 그러할 것이다. 에스겔은 미래의 성전의 구조적인 상세한 부분들과 크기에 대해 잘 관찰하며, 이것이 명확하게 임할 것을 알림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다니엘 2장 :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이스라엘을 대적해 일어날 4개의 연속적인 고대 제국에 대한 것이다. 네 번째 세계적인 제국은 고대 로마 제국을 뜻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미래에 있을 “부활한” 로마 제국을 말한다. 사람의 손으로 쓰이지 않은 돌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메시아적 통치를 견고케 하시는 것을 말한다.

다니엘 7장 : 네 짐승에 대한 다니엘의 꿈은 네 개의 연속적인 고대 제국들(바벨론, 메대-바사, 그리스, 로마)과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말한다. 다니엘은 하늘의 법정(보좌)을 보며, 그곳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민족에 대한 권세를 주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취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는 장면을 본다. 고대 로마는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가까운 시기의, 임박한(near)” 성취였다. 이 예언의 “먼 미래의” 성취는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열 나라로 구성된 부활한 로마 제국으로써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 8장 : 여기에서 나타난 다니엘의 예언의 총명한 성취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류 역사의 끝에 있게 될 것이다(17, 26절). 이 환상은 메대-바사와 그리스(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니엘 8:9-14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9절)에 대한 공격을 묘사하고 있다. 23-25절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다니엘 9장 :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자신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도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의해 다시 한 번 올려지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천사 가브리엘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곧 풀려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그리고 그는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완성되게 되는 칠십 이레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 예언에서 “이레”라는 말은 7년을 말한다(7일이 아닌). 따라서 칠십 이레는 490년을 말한다. 처음의 69이레, 즉 483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 끊어져 없어진 때 하나님의 달력에 “공백기1)”가 주어졌다. 마지막 70번째 이레, 즉 마지막 7년에는 적그리스도 혹은 “장차 올 왕”이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이다(27절). 처음의 69이레(483년)는 BC 445년에서 AD 3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역자주 : 공백기적 해석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다니엘 11장 : 이 장은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자세한 예언이 기록된 부분이다. 여기서는 알렉산더 대제의 등장과, 뒤를 이어 나타나는 네 개의 제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은 2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의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다니엘 11:36-45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의 비교 없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정확하고 직설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다니엘 12장 : 이 장은 이스라엘에게 있을 역사상 가장 큰 환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환란은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한 때 두 때 반 때).

[구약 소선지서]

호세야 1장 :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후에 오게 될 것이다.

호세야 2장 :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 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알게 된다(16절)

호세야 3장 : 이스라엘은 말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5절의 “그 후에”라는 말은 시간대를 분별하도록 해 준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 바로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호세야 5:15-6:3 : 여호와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큰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까지 “하나님의 곳(My place)”에 머무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호세야 14장 :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녀의 변절함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요엘서 2장 : 적그리스도는 대 환란 때에 이스라엘 대한 군사적인 침략을 행할 것이다(2절). 이 재난은 아직 이 세계가 보지 못한 가장 큰 성경의 부으심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구절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2절에서 나타나는 침략하는 군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군대(적그리스도의 군대)이다. 그리고 28절의 “그 후에”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회복 바로 앞에 이 군대가 있게 됨을 의미한다. 요엘서 2:1-11절은 BC 605, 597,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세 번의 침략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요엘서 3장 : 모든 열방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로 모이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 8장 :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은 BC 721년에 앗수르 군대가 북쪽의 10개 지파들을 정복하고 포로로 데려간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BC 701년 산헤립의 침공과 바벨론의 세 번의 침략(BC 606년, 597년, 586년) 또한 이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이다.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것과, AD 135년 예루살렘이 파괴당한 것에서 다시 한 번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장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예언은 대낮에 해가 지고 한낮에 땅이 캄캄케 되는(9절), 다섯 번째 대접 심판(계 16:10)과 같은 일에서 충만하게 성취될 것이다.

아모스 9장 :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이 예언은 다시 세우실 것이며, 모든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본토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오바댜 1장 : 여호와께서는 모든 열방에 자신의 진노를 쏟으시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실 것이다.

미가서 2장 :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길을 여시는 한 분에 의해 회복될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악한 리더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시다. 미가의 날의 악은 말세의 “고통의 때”(딤후 3장)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 장의 말씀은 악에 대해 모든 세대를 향해 주어지는 예언적 경고이며, 또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에 공의가 충만해지는 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가서 4장 : 미가는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열방을 평화로 다스리시는 때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를 향해 반역하는 열방을 “타작하신(thresh)” 후가 될 것이다. 미가는 자신의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으며, 끔찍한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9-10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일은 바벨론과 그들의 포로됨으로부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해산의 고통”은 BC 53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미가서 5장 : 메시아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신 후,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다스리는 자는 예수님이시다(2절).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 또한 이곳에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물리침은 미가의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일이었다(5-6절). 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앗수르 왕 산헤립을 물리친 사건이다(사 37:36).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적이 “진멸”되는 일과 유대인들이 열국 중에 흩어져 있는 일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다(7-9절).

미가서 7장 : 부흥과 구원을 향한 미가의 기도는 마지막 때에 충만하게 응답될 것이다. 이 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대 환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행했던 이적들을 보이시며(15절),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며,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열방은 자신들의 군대 세력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며 여호와 앞에 두려움을 떨며 나오게 될 것이다(16-17절).

나훔 1장 :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맹렬한 노를 보이실 것인데, 이는 적그리스도(사특한 것을 권하는 자)와 악한 나라들의 연합을 끝장내실 때(계 14:10; 15:1)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BC 612년 바벨론 군대와 메대에 의해 패배할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앗수르 왕 산헤립(사특한 것을 권하는 자)은 자신의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다(왕하 19:36-37).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될 것인데, 이는 악인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게 되는 때이다(15절). 이스라엘은 BC 612년 이래로 수많은 침략을 당해온 사실이 있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며 천년왕국을 세우신 후에야, 이스라엘은 영구적인 안전함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박국 2장 : 악하고 교만한 자는 마치 “사망 같아서 죽한 줄을 모르는”(5절) 자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대부분 성취될 것인데, 이는 모든 열방을 모아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열방을 침략하며, BC 539년에 바사 제국에 의해 침략당할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악한 자가 모든 열방(만국)을 그에게로 모으는 때이다(5절). 바벨론은 이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었지만, 이 예언의 모든 부분을 성취하지는 못했다. 바벨론은 만국이 아닌 아주 일부분만을 모았을 뿐이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나라들을 모으고 억압할 것이다(시 2:1-3; 계 13:14-17; 16:13-14; 17:12-14).

하박국 3장 : 하박국은 하늘과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행진의 비전을 보게 된다. 이 일에 대한 예언적인 전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적국을 물리치며 나아간 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의 광명의 햇빛 같음은 불기둥에서 볼 수 있고, 주께서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 것은 홍해를 가른 사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통과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해가 그 처소에서 여호수아를 위해 멈췄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일곱 번째 대접이 묘사된(겔 38:22; 속 14:12-18; 계 16:21)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게”(5절)되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때에 성취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온역이 그들을 앞서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또한 재림의 때에 열방을 분노로 밟으실 것이다(합 3:12; 계 19:15).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며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계시록 19:11-14절에서 성취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전차(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의 군대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왕하 6:17).

스바냐 1장 : 사람과 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하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3절). 이는 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벨론이 예루살렘을 훼파할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반역하는 나라들을 심판 하시며 오시는, 그의 재림과 대 환란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스바냐 2장 :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신들 위해 높임을 받으시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에서 언급된 모든 지역들은 다양한 강도로 심판을 경험해왔다. 예를 들어 니느웨와 앗수르 제국은 BC 612년에 멸망했다. 그러나 거민이 없게 될 정도나(5절) 영원히 황무하게 될 정도로(9절) 가혹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지역들에 대한 심판의 최종성이나 엄정함은 마지막 때에 성취될 것이다.

스바냐 3장 :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에 모든 악한 나라들을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8-20절). 이 예언은 BC 721년에 앗수르 군대가 북쪽의 10개 지파들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갔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유다는 BC 701년에 앗수르의 산헤립, 그리고 유다를 세 번이나 침공한 바벨론(BC 606년, 597년, 586년)에 의해 이 심판을 부분적으로 경험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부분적인 성취가 있었다(BC 445년). 온 땅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소멸되는 것과(8절), 나라가 교만하게 되지 않는 때와(11절), 다시는 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15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취될 것이다.

스가랴 1장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번영을 회복하시며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것이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의 치하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와(BC 536년) 느헤미야 때에(BC 444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17절에 그려진 풍부함과 평화는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AD 70년의 두 번째 흠어짐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세력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얻게 될 회복에 대한 약속의 대부분은 국가적인 회개와 관련이 있다(슌 12:10-14). BC 536년에 있었던 땅으로의 복귀, 또는 1948년의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는 일에서 이러한 일은 성취되지 않았다.

스가랴 2장 : 여호와께서는 천년왕국 때에 예루살렘에 전에 없던 인구의 증가와 경제적 풍요를 허락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하시기 위해 자신의 명백한 임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을 엄격하게 다루실 것이다. 이 장의 예언의 부분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이 헤롯 대제 때와 1948년에 경험한 제한적인 부요함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인구의 증가와 번영은 말씀에서 그려진 정도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더구나, 이스라엘 주민들에게는 항상 주변 적들의 위협이 있어왔다.

스가랴 3장 :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의 죄와 깊이보다 더 위대하시다.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권세는 메시아께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일하심으로 완전히 정결케 하시며, 그분 앞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권세를 온전케 하심으로 충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마의 때에(BC 516년), 이전에 있어왔던 이스라엘의 죄의 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전과 제사장적 사역을 회복해주셨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화해케 하신 일하심을 국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속 3:9; 12:10; 롬 10:12; 11:26).

스가랴 4장 :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을 향한 켜서 비취는 등불(burning and shining lamp)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사역을 회복하실 것인데, 이는 특별히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계 11:3-6).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사역은 스룹 바벨 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며 제사장들의 사역이 회복될 때에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현저한 임재는 다시 지어진 그때의 성전에 돌아오지 않았다.

스가랴 5장 :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제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에 반해 시날 땅(바벨론)은 악이 가득 차오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BC 536년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후,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명백하게 제해졌다. 그러나 여기에 그려진 대로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 완전하게 다뤄진 적은 없었다. 이 예언은 고대 바벨론의 쇠락기에(BC 519년)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은 미래에 있을, 악이 거하게 되는(계 17-18장) 이 도시의 부활을 그려내고 있다.

스가랴 6장 :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님을 온 땅의 왕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실 것이며, 이곳으로부터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스가랴 8장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며(영적, 농경적, 물리적, 재정적), 이 일은 예루살렘이 전 세계적인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안전케 하시는 일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와는 비교되는 번영이 느헤미야 때(BC 444년)로부터 AD 70년에 흩어지기 전까지 있어왔다.

스가랴 9장 :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시는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전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모든 전쟁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제 때(BC 332년)와 적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BC 167-165년)로부터의 예루살렘의 해방 때에 부분적인 성취가 있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포획한 자로부터 고통 받지 않게 되는 때에 있게 될 것이다(8절).

스가랴 10장 : 여기에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의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파멸되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나라 전체를 구원하시고 많은 이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스라엘에는 큰 인구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은 1948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스가랴 12장 :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의해 에워싸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방어하실 것이며, 이 일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일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전심을 다해 돌아오게 되는 일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스가랴 13장 : 유대인의 2/3가 죽임을 당하고, 1/3이 구원을 받게 되는 대 환란 후에,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정결케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 : 열국이 모여 예루살렘을 대적해 나올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회복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땅에 생명을 가져올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거룩한 전 세계적인 예배의 중심으로 세워질 것이다.

말라기 3장 :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나라들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예비케 되도록 선두 주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마 11:10; 막 1:2; 눅 7:27). 말라기가 이 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궁극적인 심판이나 이스라엘의 정결케 하는 일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말라기 4장 : 말라기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에게로 돌이키게 할 궁극적인 선두주자의 사역으로써 엘리야가 올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다섯 권의 성경에서 주로 볼 수 있다(창 12:1-3; 13:14-17; 15:4-21; 17:1-21; 22:15-18).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언약에서 다시 한 번 확증되었다(창 26:1-4; 28:10-14; 35:9-12; 48:3-4).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창 12:2; 13:16; 15:4-5; 17:6), 그의 육신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 12:7; 13:14-15; 15:7; 17:8). 이는 온 세계 가운데 큰 축복이 될 것이다(창 12:3; 22:18; 28:1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언약으로써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써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써 멸망한다고 가정하면, 그 땅을 영영히 소유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아브라함 언약의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생애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동안 부와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하셨다(창 24:1,35). 그의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육신의 자손을 허락하셨다. 400년간의 노예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그들은 독특한 하나의 민족 그룹으로써 멸망한 적이 없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창 17:8).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하 7:11-16절과 역대상 17:10-15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언급은 다른 성경 구절들에도 드러나 있다(삼하 23:5; 대하 7:18; 21:7; 시 89:3-4,28-29,34-37; 렘 33:19-26).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영영이 이어질 것이며, 그 보좌와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이다. 다윗에게 주어진 영역은 실질적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이미 그분의 왕으로써 다스림과 권세를 취하신 것이 명확한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날에 현재의 자연계의 땅을 다스리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예언적 시기들

BC 721 :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들은 앗수르왕 사르곤에 의해 잡혀갔다(왕하 17장). 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구약에 언급된 앗수르의 리더들은 디글랏 빌레셋(왕하 15-16장), 살만에셀(왕하 17-18장), 산헤립(왕하 18-19장, 대하 32장, 사 36-37장) 그리고 사르곤(사 20장)이다.

BC 701 : 산헤립 하의 앗수르 군대는 히스기야 때에 유다(남왕국)를 쳐들어왔으나, 예루살렘 함락에는 실패했다(왕하 18-19장; 대하 32:1-23; 사 9:1).

BC 612 : 앗수르는 나훔이 예언한대로 전복되었으며, 수도인 니느웨(니네베)는 멸망했다. 바벨론이 중동 지방의 새로운 왕국으로 등장한다.

BC 606 :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끌고 간다.

BC 597 :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강탈해서 10,000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BC 586 :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재침공 당하며 성전은 파괴된다. 그는 더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간다. 하나님의 백성의 디아스포라, 흩어짐이 시작된다(신 28:41,49,64; 렘 25:9,12; 22:7; 27:6; 43:10; 합 1:5-7).

BC 539 : 바벨론 제국이 함락되고 바사 왕 고레스의 통치 하에 들어간다.

BC 536 :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의 허락 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50,000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오며,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대하 36:22; 사 44:24-45:4).

BC 520-516 : 성전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적 사역 가운데 완공된다.

BC 175-165 : 앗수르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유대인은 BC 167년에 이 압제자의 통치로부터 독립했으며, BC 139년에 로마 상임위원회로부터 나라로 인정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BC 37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갈 때까지 100년 동안 독립된 상태로 있어왔다.

AD 70 :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불태웠다(마 24장; 막 13장; 눅 21장).

AD 135 : 예루살렘은 하드리안(Hadrian, 하드리아누스)의 통치 하에 있는 로마로 인해 완전하게 훼파됐다. 580,000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유대인들은 그들의 도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 당했다.

1940년대 : 6백만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1948년 : 이스라엘은 국가로써 다시 세워진다.

1967년 :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AD 70년의 일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가 아니다

AD 70년에 있었던 일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대 환란의 시간대가 인류 역사 가운데(창세로부터) 가장 극심한 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 시기는 이제까지의 모든 재난을 능가하는 때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예언에 대해 상징화를 통해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AD 70년에 총체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대 환란은 너무도 극심한 시간대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치달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그 시간을 3년 반으로 줄이신다(마 24:21-22). AD 70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 마이크 비클

는 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제 2차 세계대전에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모두는 대 환란에서 언급되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으며, 이 두 사건 모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시간은 아니었다. AD 70년의 시간은 명확히 대 환란에 있을 일들에 대한 전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말씀에서 대 환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서는 대 환란에 대해 우리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때는 전에 없던 수의 사망(계 6:8; 9:15)이 있게 되는 때이다. 계시록 13:11-18절에 나와 있는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것과, 짐승의 표와, 상처를 입은 머리가 낫는 것과,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의무적 경배가 있게 되는 것과,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것이다. 로마를 대항한 유대인의 봉기(AD 66-70년)에서는 이 가운데 어떤 일도 성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재난 가운데,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제 2성전이 파멸 당했다(AD 73년, 마사다). 그리고 로마를 대적하여 일어난 유대인의 바르 코크바 항전에서, 500,000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1,000개의 마을들이 파괴당했다(AD 132-135년). 이스라엘은 추방되었으며(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은 재건되어 아엘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라고 불리게 되었다.